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며 영원히 지키리이다”
고교 졸업식서 ‘예수님 찾으라’ 연설한 학생, 졸업장 수여 지연**



미국 켄터키주의 한 고등학생이 졸업식 연설에서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라고 연설한 후 졸업장 수여가 지연된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캠벨 카운티 고교 학생인 미카 프라이스(Micah Price)는 24일 열린 졸업식에서 대본을 어기고, 기독교 연설을 한 후 학교 관계자들부터 5일간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프라이스는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주님이시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전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선교는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졸업식 연설을 승인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프라이스는 청중을 향해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촉구하며,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것(빛, 길, 진리, 생명)이 없다면, 답을 찾지 못하겠다면, 저의 주님이시자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답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실 것이고, 길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졸업식 이후 그는 틱톡 동영상에서 “캠벨 카운티의 규정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셸리 윌슨(Shelli Wilson) 교육감은 프라이스가 교장과의 면담 후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WKRC 방송에 말했다.

윌슨 교육감은 “모든 연설자는 제출한 연설문에서 벗어나거나 졸업식에서 계획되지 않은 선택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받았다”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이 젊은이의 신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있지만, 교장은 학생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는 “나는 그저 나의 주님이자 구주가 내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가져다주신 일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처벌을 받을 만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했다”며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더 많이 나눌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프라이스는 이 일로 인해 학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사랑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증오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영상에서 “자신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생각한다면, 사랑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라고 기도를 요청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독교일보 종합).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시편 119:31,43-44)

하나님, 복음을 반역하는 헛된 사상과 세속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미국에 한 학생의 담대한 믿음을 만방에 드러내사 교회와 세상을 깨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통해 프라이스 형제와 성도들이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며 삶으로 전하는 일에 깨어 순종케 하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타협하지 않는 증인들을 통해 미국과 열방에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며, 목마른 자들이 나아와 길과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국제인권단체들, 에리트레아 교회 지도자 구금 사건 20주년 기념 시위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SW)를 비롯한 몇몇 국제 인권단체들이 에리트레아 교회 지도자 구금 사건 발생 20주년을 기념해 런던 에리트레아 대사관 밖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번 집회는 종교 자유를 향한 에리트레아 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릴리스 에리트레아 이사인 베르헤인 아스멜리쉬 박사는 “20년은 너무 길다. 에리트레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돼 밤에 집에서 끌려 나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채 투옥됐다”고 전했다. 세계기독교연대 카타자 곤드웨는 에리트레아 정권의 학대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억압적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재판이나 정당한 기소 없는 무기한 또는 불특정 구금이 만연하며 가장 사소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사무엘하 22:7,20)

하나님, 매년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고문과 실종, 체포 등 수많은 박해와 인권유린으로 고통당하며 이것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에리트레아를 주께 고합니다.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릴 만큼 국민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억압적인 정권과 언론 통제로 폐쇄적인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파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게 하소서. 환난 중에서 찾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신원하여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이들을 건지사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믿음의 인내로 주신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 남아공, 폭풍우로 최소 22명 사망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부에서 폭풍우로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뉴스24 등 현지 매체를 인용, 연합뉴스가 5일 전했다. 현지 재난 당국에 따르면 동남부 이스턴케이프주 넬슨만델라베이 지역에서 3일부터 이어진 폭풍우와 홍수 등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2,000명이 대피했다. 동부 콰줄루나탈주 더반과 그 주변에서도 폭풍우로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12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주 정부는 밝혔다. 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파손됐고 도로와 전기, 수도 등 기본 인프라 유실 등의 피해도 잇따랐다. 남아공 기상청은 동부 인도양 해안을 강타한 폭우로 9개 주 가운데 4개 주에 기상 경보를 발령했다. 남아공 콰줄루나탈주에서는 2022년 4월에도 더반과 주변 지역에서 폭우가 이어져 4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시편 55:1,8,16)

하나님, 갑작스럽게 몰아친 폭풍우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삶의 터를 잃어버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혼들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파손된 집과 인프라 복구를 위해 힘쓰는 재난 당국에 은혜를 베푸사 주를 힘 있게 의지하게 하셔서 피해지역들이 속히 회복되어 남아공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재난과 같은 이때,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남아공의 교회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티 갱단, 선교사 3명 살해하고 시신 불태워



아이티의 갱단들이 젊은 미국인 선교사 부부와 아이티인 선교단체 지도자 1명을 살해한 뒤, 2명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는 데이비 로이드(23)와 나탈리 로이드(21), 그리고 미국 오클라호마에 기반을 둔 선교단체 ‘미션스인아이티’(Missions in Haiti) 이사인 주드 몬티스(45) 주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희생자 3명은 5월 23일 밤 선교단지에서 무장한 남성들에게 습격당했다. 데이비와 나탈리는 아이티에서 전임 선교사로 사역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종교 봉사에 헌신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한 영상에 따르면, 3명의 시신이 바닥에 있었고, 그 중 두 구는 불에 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부는 2022년 6월 결혼 후 아이티로 이주했으며, 데이비 로이드의 부모가 2000년에 설립한 단체인 미션스인아이티에서 사역해 왔다. 이 단체의 고아원은 포르토프랭스 북쪽의 리존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폭력적인 갱단들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이다.

나탈리 로이드는 미주리주 하원의원 벤 베이커의 딸이다. 베이커 의원은 딸의 사망 직후 페이스북에 “내 마음이 천 갈래로 찢어졌다. 이런 고통은 느껴 본 적이 없다”고 비통함을 표현했다. 데이비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2005년에 데이비와 그의 형제들이 납치됐다가 21시간 후에 구조되는 등, 이 선교단체가 수많은 도전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아이티 경찰은 국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살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백악관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아이티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이 승인한 국제 경찰 병력을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폭력은 아이티에서 악화되고 있는 갱단 활동의 일부다. 주로 미국에서 밀수된 무기로 무장한 갱단들은 수도와 다른 도시 전역에 퍼져 경찰서와 병원을 공격하고, 수감자들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있다.

이번 살인 사건은 아이티의 새로운 통치 위원회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케냐 경찰 병력의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에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자금 문제로 인해 병력의 배치가 지연되고 있다. 선교사들이 살해된 후, 미국은 케냐 정부에 경찰 병력의 신속한 파견을 촉구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유지 경찰 병력이 약 3주 내에 아이티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디도서 3:7-8)

하나님, 갱단의 폭력과 위협에도 아이티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의 안타까운 순교 소식에 비통한 심정으로 이 땅을 주께 위탁드리오니 속히 좌정하사 이 나라를 회복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앞서 간 이들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힘을 주소서. 이 일을 통해 미뤄진 국제 사회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알의 밀이 되어준 선교사들을 통해 반드시 주님의 때에 나타내 보이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아프간, 국내 실향민 800여 명...거주지 철거로 집 잃어

아프가니스탄 당국이 카불의 국내 실향민들을 위한 비공식 거주지를 철거하기 시작하면서 800여 명의 실향민들이 집을 잃게 됐다.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RC)는 아프간 당국에 적절한 장기적인 이주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강제 퇴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의 아프가니스탄 국가 책임자인 닐 터너는 “2일 수도에서 약 6,000명의 국내 실향민을 강제 퇴거시킨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이들은 아프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사회 중 일부다. 카불에서 우리 팀이 만난 몇몇 가족들은 당국이 집을 철거한 후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시편 119:92-93)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당국이 실향민들을 위한 해결책 없이 거주지를 강제 철거하여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돌아보옵소서. 탈레반이 장악한 뒤로 포악이 날로 더해져 국민들의 깊은 한숨만 늘어가는 이 땅에 주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여 주소서. 가장 박해받는 아프간 교회에 주의 법으로 고난 중에 이길 힘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 남부 아프리카, 심각한 가뭄에 수백만 명 기아 위기

남부 아프리카 전역에서 3,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엔(UN)과 파트너들은 다음 갈수기 전에 긴급히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심각한 기아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유엔 엘리노라니나 대응 기후 위기 조정관인 리나 겔라니는 “현지에서 만난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그리고 대규모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7월에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엘리노 현상의 영향으로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기온이 평균보다 5도 이상 높은 심각한 강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신명기 10:14,20)

하나님, 남부 아프리카 전역에 심각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심각한 기아에 빠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오직 의지할 곳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라들의 긴급한 필요에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들에 지혜를 주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손쓸 수 없는 상황과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있는 영혼들에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여 눈을 들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임재 경험하는 시리아 그리스도인



13년간의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은 시리아 북동부에 사는 청년 조지(George)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주님을 떠났다가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며 회심한 간증을 소개했다.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시리아 서부로 이주한 후 조지는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2014년의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 무신론자의 삶을 살 뻔했다. 그는 2014년 북동부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러 가던 중 자밧 알 누스라(Jabhat al-Nusra) 무장 조직에 의해 납치됐다.

조지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 했지만 한 무장 조직원이 그의 신분증과 기독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견하면서 끌려갔다. 이때부터 조지에게 고난의 여정이 시작됐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그를 고문하고 모욕을 주며 처형할 날짜를 정할 때까지 고된 노동을 시켰다.

그의 가족은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조지의 고통과 알 수 없는 운명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됐다. 어느 날 무장 조직은 조지에게 자신의 손으로 무덤을 파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에게 무덤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무장 조직은 조지에게 신을 위해 죽거나 예수를 부인하고 이슬람 경전 샤하다를 암송한 후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조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 앞에서 샤하다를 선언하고 자신이 무슬림이 된 척했다. 그러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시리아 군대가 조지가 억류돼 있던 무장 세력의 캠프를 공격했고, 그는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조지는 오랜만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 조지는 테러리스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을 죽음의 깊은 곳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궁금했다.

조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롭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는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며,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렸다. 조지는 살아 남았지만 그가 견뎌야 했던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모데전서 1:15-16)

하나님, 내전과 심한 박해 속에 고통과 혼란이 가득한 시리아에서도 한 영혼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측량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예수의 은혜가 조지 청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 상처의 흔적을 이겨내고 앞으로의 모든 날도 넉넉히 승리하며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소서. 고난 속에 피어나는 생명을 통해 시리아 교회가 힘을 얻고, 이들을 통해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탄생...투표일 총격으로 2명 숨져

지난 2일 치러진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 국가재건운동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가운데, 투표 당일 각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들을 인용,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선거 전부터 주요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20여 명이 갱단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고 숨진 가운데 투표 당일에도 개표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주 코요메탄에서는 투표소에 난입한 괴한들이 유권자와 선거 사무원을 위협하다 2명에게 총을 쏘고 1명이 숨졌다. 푸에블라주 트라파날라에서는 투표소에서 복면과 두건을 쓴 6-7명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훔쳐 가면서 총을 쏘 관계자 1명이 숨졌다. 멕시코 유권자들은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 2만여 명의 공직자도 함께 선출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14:33-34)

하나님, 멕시코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잇따라 피살당하며 갱단의 횡포로 나라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당선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멕시코를 화평케 하실 분이 진정한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인정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명철한 마음을 주옵소서. 전통적인 가톨릭 나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한 이 나라에 당국이 공의와 사랑으로 박해에 대응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로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소서.

▲ 러,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납치해 러시아 가정 입양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아동 다수를 납치·강제 이송해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아동들을 러시아 가정에 입양시키고 있다는 단서가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NYT)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아동보호시설 '헤르손 아동 집'에는 형편이 못돼 부모가 키우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등 영유아 46명이 돌봄을 받고 있었다. 헤르손은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 러시아에 점령됐고 2022년 10월 21일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면서 이 아동들은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로 이송됐다. 크림반도 아동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아이들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바꿔 시민권을 부여받아 입양 절차를 밟았고 이들 중 22명 프로필이 러시아 연방 정부 입양 사이트에 게재됐다. 전문가들은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아동 수를 약 1만 9,500명으로 추산한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역대상 17:13)

하나님, 몹쓸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아동이 납치되며 강제 이송과 입양으로 고통받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여! 강제 이송된 1만 9,500명의 아동이 속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타국에 의해 삶이 결정되어 버린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어린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